

영광군, 출산율 2.54명 '압도적' 전국 1위...꼴찌 5배

통계청 '2019 출생통계'...전국 출산율 0.92명
6년 연속 1위 해남군 넘어...출산장려책 효과
228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대체출산율 넘어
출산 나이 용산 34.4세...셋째 출산 수원 최다

영광군이 전국 시군구 중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꼴찌' 부산 중구와 5배 넘는 큰 차이를 보였다.

26일 통계청의 '2019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보다 7.4%(2만410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하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출생아 수는 세종

(3.1%)에서만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16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충북(-11.8%), 부산(-11.0%), 전북(-10.3%)에서 감소폭이 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세종(11.7명), 제주(6.8명), 울산(6.6명) 순으로 높았고, 전북(4.9명), 부산(5.0명), 강원(5.4명) 순으로 낮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세종(1.47명), 전남(1.23명)·제주(1.15명) 순으로 높았지만 전년보다 모두 줄었다. 합계출산



율이 1명을 넘어선 곳도 전년(12곳)보다 줄어 전체 절반에 못 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2.54명)이 가장 높았다. 2018년 통계까지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전남 해남군(1.89명)을 뛰어 넘었다. 전년

(1.81명) 대비 0.73명이나 크게 늘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 중구(0.50명)와 비교해 5배나 높았다.

특히 영광군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현재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체출산율 2.1명을 넘어선 지역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이 압도적인 출산율을 기록한 배경에는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결혼·출산 지원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결혼장려금 500만원에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는 5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이상 출산 가정에는 최고 3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해남군은 합계출산율에 있어 전년 대비 눈에 띄는 변동세 없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 의성군(1.76명), 전북 진안군(1.69명), 강원 철원군(1.65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와 서울 관악구(0.54명), 강남구(0.61명), 대구 서구(0.62명), 서울 강북구(0.62명) 등이었다.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 중 6곳이 서울 지역이었다.

228개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시군구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1개이며, 1.0명 미만인 시군구는 107개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출산 나이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34.4세)를 시작으로 상위 7곳이 모두 서울이었다. 출산 나이가 가장 낮은 시군구는 강원 화천군(30.9세)으로 전국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30세를 넘었었다.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비중은 전북 보성군(26.1%)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성동구(3.1%)였다.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수원(595명)이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52.6%가 무증상... '깜깜이'도 증가

무증상자 생활 속 전파 우려 커
방역대응 늦어져 감염 확산될수도

광주에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91명이며 이 중 무증상자가 153명으로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전체 5.9%에 이른다. '깜깜이' 환자의 전국 평균은 20%다.

무증상 확진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감염을 전파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역대응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무증상과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면서



25일 광주 북구 각화동 모 교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 참석 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지난 16일과 19일 이 교회에서 3차례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 직·간접 접촉자로 분류된 교인 모두를 검사한다.

감염경로도 상무지구 유흥시설, 학습지 회사, 종교단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한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150만 시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 국가하천 수문 52곳 첨단 기술 접목

영산강·황룡강·광주천·지석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기술을 접목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배수갑문을 자동·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광주에 구축된다.

광주시는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지석천 등 국가하천 내 수문 52개소를 대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배수문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주말과 야간에 홍수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는 수문에 대한 인력의 적시투입 곤란으로 안전사고와 침수피해 발생 등 문제점이 상존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문 관리에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자동수위계와 CCTV 등을 설치하고, 수위 차에 의해 자동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하천을 확인해 유사시 수문을 원격으로 개폐할 수 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



폭우로 인해 한때 범람 위기에 놓였던 광주천 수위가 낮아진 지난 10일 산책로에서 관계당국이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되며, 전액 국비로 총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사업비로 25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물량과 총 사업비를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습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한 급작스런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한 수문 개폐가 가능하고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본부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